

좌담: 지역문화경관과 현대 도시,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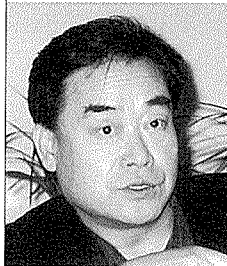
Landscape of Regional Culture and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e

일 시 / 1998. 2. 13. (금) 15:30 ~ 18:00
 장 소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건축공학과 세미나실
 참석자 / 정무웅(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진행)
 고인룡(천안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교수/정리)
 김억수(공주대 중문과 교수, 백제문화연구소 소장)
 심영섭(호서대 건축학부 교수)
 이재훈(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천규(충남건축사회 회장)
 이해준(공주대 사학과 교수)
 최맹식(부여문화재연구소 소장)



좌담회 광경(진행 / 정무웅 교수)

정무웅 _____ 오늘 좌담회는 건축사지에서 주관하는 도시건축 탐방기획 그 중에 백제문화권의 한부분인 공주, 아산, 부여 도시건축 탐방기획의 부분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작긴 하지만 자연지형적인 조건 때문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어서인지 그래서 독특한 지역문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의 구성상 백제문화권을 역사도시로 “공주, 아산, 부여지역” 하고 “전주, 익산, 군산지역” 두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문화권의 첫 번째 논의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논의의 방향과 주제는 먼저 지역성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이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세번째로는 이 지역이 옛부터 내려오는 역사 문화 흔적들이 매우 강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 고유한 지역성을 나타내는 요소(경관요소)를 찾아 보고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개발과 보존이란 문제로 이런 지역의 자립화, 도시구조의 재편성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개발, 보존

의 현대화 측면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개발과 보존이란 문제는 양립적인 문제로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성이란 얘기는 지방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지역이란 말은 많이 쓰는데 지역성이란 개념이 무엇이고 왜 지역성을 논하고 지역성이라는 것을 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재훈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_____ 지역성은 로컬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건축·도시분야에서의 지역성을 얘기할 때는 기후·지형과 같은 지리적인 입장에서 생겨나는 특성과 인종이나 역사 문화 등에 생겨날 수 있는 인문적 특성 두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밖에 안되는 짧은 거리고 이 속에서 지리적 변수가 많지 않아 과연 지리적 인자에 의한 지역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종이나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삼국시대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지만, 1000~1500여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 후 1000년 이상 단일한 국가체계를 지켜온 나라에서 과연 인문적 인자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지역성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역성이란 것을 한국전체의 한국성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도시나 건축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이나 부산, 대전, 광주 등의 대도시나 천안, 아산, 공주 이런 소도시들을 보더라도 대도시나 소도시 할 것 없이 일반사람이 느끼기에는 어디에 갔더니 어떤 특색이 있더라 할 정도로 구별지를 만큼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성을 논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사건 또는 없는 특색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측면까지도 부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역성을 논의하는 배경을 두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먼저 지역자체의 특성을 찾겠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환경은 국제화라는 시각에서 보편타당한 문화를 건축이나 도시에 이식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고, 그런 시각에서 생겨질 수 있는 모순과 문제점들을 보상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지역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즉 현대 건축에서 부각되고 있는 지역주의, 즉 로컬리즘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지, 각 지역적으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세계화(글로벌)에 의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21세기의 건축·도시적 사명이다라는 시각에서 지역성 논의가 긍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루는 지역을 보면, 백제문화권으로 묶여져서 아산·천안지역과 공주, 부여가 함께 묶여졌는데, 사실 천안·아산을 백제문화권으로 포함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백제문화권을 광역적인 시각에서 지역적으로 구별되는 하나의 특성으로서 아산·천안도 포함시켜서 이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용 이재훈 교수께서 지역성이 있느냐? 지역성을 왜 얘기해야 하느냐를 글로벌시대의 한국성이라는 범위까지 넓혀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 역사 인류의 삶을 연구하시는 이해준교수님께서 지역을 나누게 된 취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준 전체적으로 이재훈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보면 한국은 또 하나의 지역일 뿐입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하면 한국에서의 한 지역이지만 백제문화권이라는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역성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을 지키고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성을 건축에서 보여주는 예는 드뭅니다. 인상적으로 '여기는 지역 냄새가 난다'고 느낀 곳으로는 '전주'가 있는데 전주에는 시청도 한옥이고 역사도 한옥이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한옥스타일로, 물론 전주라는 지역성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것 하나가 무척 강한 인상을 줍니다. 지역성이라는 것을 건축쪽에서 보다는 우리 사학쪽에서 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 그곳의 냄새가 풍기는 것을 지역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감나무가 많은 감나무골에서는 감을 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음식이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지역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역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얼른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고, 시대가 다르

며 아무리 백제문화권이고 백제의 고도였다고 하지만, 백제의 왕조시대에 살았던 사람하고 지금의 공주사람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정서적으로 깔리는 전통적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역성을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건축이 대부분 이런 지역성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고, 그런 점에서 오늘의 모임이 시기적절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포함해서 모든 문화에서 차별성을 지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은 저 지역과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차이를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화하고 자원으로 활용해서 건축에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활용하면 지역의 정서에 맞고 차별성을 지닌 상품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쪽에서 지역성을 접근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고인룡 지역성을 말할 때 먼저 다른 곳과 무엇이 다른지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라는 시점에서 차별성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백제권이라는 구분을 위한 특성도 오늘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개방된 자연형태에서 다분히 폐쇄적인 건물구조나 방어적 특성유지라는 점에서 주장되는 지역성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중부문화권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성에서 근거를 두고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할려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개념에서, 다른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정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중소도

시를 얼핏 보면 어디가나 비슷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비슷비슷한 주택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생활조건과 경제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70년대 말부터 80년 들어서면서 이 지역에 나름대로 지역적인 냄새, 한국적인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공공건축물들을 중심으로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논의가 됐으면 한다. 어떤 면에서 최근에 지어지는 지역특성을 지닌 건물들은 전통적, 한국적이라는 광역적 개념에서 접근되어 한국적인 건물이라고 이해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이 지역에 맞는 형태이고 공간인지 하는 점은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준 동의할 수 없는데요. 개방적, 즉 낮고 넓은 지역특성을 피해로 연관시켜 폐쇄적인 지역특성이라 했는데, 역사적인 도시치고 폐쇄적 아닌 곳이 없습니다. 공주는 천안이나 부여에 비해 더 폐쇄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명맥이 유지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목적에서 나온, 말하자면 방어적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시는 거의 그렇지요. 부여만 해도 공주에 비해 개방적이므로, 그래서 그곳에 도청을 가져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안은 지금 신도시로 펼쳐나가지만 공주는 지형상 공업단지가 설 수 없는 곳이죠. 또 천안같은 곳은 고려나 조선시대에 행정도시가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별성을 강박관념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남는 방법이기에 때문에 절박한 것입니다.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 이미지를 살려줄 때 도시도 살고 건축도 차별성을 갖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봐야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없는 것을 찾는 것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건축물의 전통성표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건물을 짓는데 주민들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가능한 한 전통적인 분위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정도이고 이를 건축가가 나름대로 해석할 때 지역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박물관이면 그 박물관의 스타일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여박물관을 읍집 형식으로 지었더니 일본식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만큼 의식 수준이 따라갈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지금 이 모임을 갖는 것도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으니 거기엔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무웅 경관, 즉 landscape란 일정한 어느 지역에서 보여지는 것의 한계, 범위로 이야기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의 경관요소는 '자연적 경관'과 '인공적 경관', '문화적 경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 경관은 자연적 요소이고, 인공적 경관은 도시구조나 건축을 포함한 인위적 요소이며 문화적 경관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생활양식, 역사적인 유적이나 유물을 포함해서 문화적 경관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과연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논해보도록 하죠. 아산, 공주, 부여의 특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하고 그런 것의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죠.

김억수 신라문화권은 경주를 중심으로 개발을 해왔음에 비해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측

면에서 보면 신라문화권에 비해 집중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권은 문화, 유적이 산발적이고 영역이 넓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라문화권에 비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권에서의 유적이나 유물발굴의 관계에 있어선 지역간의 연계를 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제권의 수도가 충남권인 공주와 부여이지만 공주와 부여만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백제문화권은 전북 익산, 영산강 유역까지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산발성이 강하고 신라문화권과 비교하면 집중성이 떨어지므로 지역성 또한 떨어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준 백제문화권의 권역을 설정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충청권에 관한 얘기, 그 지역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심영섭 문화권에 한정짓지 말고 백제문화권의 성격이나 천안, 아산, 공주, 부여가 우리 국토의 중부 지방에 있다는 점, 현대의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무웅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를 쓰다보니까 이 지역의 범위나 이해의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백제문화권이 공주, 부여, 아산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주, 부여, 아산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이 백제문화권에 속해있다고 정해놓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심영섭 건축쪽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경관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다니다 보면 낮은 구름지를 끼고 촌락이 있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백제문화로 거론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건축적인 관심이 박물관에서 역사 공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끝났고 실무건축계에서는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졌습니다. 건축사들에게는 현대적인 관점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무웅 공주, 부여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대에 관계없이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 자체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차별성이고 지역성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 중 하나가 다른 중소도시하고 유사한 점이 있겠지만 도시의 스케일과 도시의 스케일을 결정하는 요소 중 중요한 것이 자연적인 요소입니다. 이 자연적 요소 중 산과 강에 대한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 작다하는 것보다도 산과 강이 도시 스케일을 결정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조물로서 도로, 건축물 등이 이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규 이 지역의 건물형태, 다시말해 옛 선조들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모양 찾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맹식 백제는 4차례 정도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금강 하류에 어쩔 수 없이 강을 끼고서 수도를 정착하게 되었고 그것이 부여까지 오게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소형 또는 대형의 저장고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을 숨긴 다든가 하는 것인데 저장고나 생활양식 등이 옛날부터 그런 면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신라와 같은 배타적이고 고정적인 것과는 차이가 나는 특성을 이룬다고 봅니다. 또 고분들은 잘해야 토기 몇 점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것들도 어려운 생활양식이나 살기 위한 수단, 빨리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물·유적 등이 파괴가 심하기도 하지만 옮겨 다니는 삶 속에서 대형으로 할 수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특질입니다.



최맹식 공주 같은 경우 현재 개발 등에 의해서 옛날 고도로서의 성격·특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여는, 유적은 몇 개 없지만 고도제한 등으로 비교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발이나 계획이 주어질 경우에 유적이 몇 개 남아있지 않지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유의하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훈 천안,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죠. 우선 '천안'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살펴보면 삼국사기에서부터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 이 천안지역이 백제, 고구려, 신라가 치열하게 싸우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은 이 지역이 전략요충지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천안을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항상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서쪽으로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그 산맥의 줄기가 끝나면서 나오는 평지가 이 천안입니다. 그래서 접경으로 신라와 백제가 만나고, 고구려가 내려와서 고구려까지 겹치는 그런 지역으로, 이 지역이 편안하면 천하가 편안할 것이다라는 예측적인 측면에서 '天安'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天安'이란 곳은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가장 편안하지 않은 장소, 가장 전략적이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 결국 교통이 사통팔달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에서 천안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이 백제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에 대해서는 사료관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까지도 천안지역이 많이 번창했다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직산현'이라고 해서 천안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현 소재지가 있는 상황으로 봐서 일제시대 이후에 철도가 개설되면서 발전된 도시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도시의 개념은 조선시대 '천안삼거리' 노래도 있듯이 교통의 요지였고 일제시대때 역사가 설치되면서 철도역사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천안의 교통도시적 특성은 여전히 이어져 교통의 중심지로 철도나 고속도로가 지나고 고속전철이 지나가면서 지형적인 여건과 함께 이곳으로부터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좀 낭만적인 시각으로 보면, 천안에 있는 동명을 보면 성정동, 성촌동, 구성동, 성성동 등 별성(星)자가 들어가는 동네 이름이 많은 것이 특색입니다. 이 이름이 언제 들어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천안의 하늘 천(天)자하고 관련해서 '하늘의 별'이라는 연관성에서 별이 들어간 동네 이름으로 생겨난 것 같고, 와룡동, 삼룡동, 오룡동, 구룡동, 대룡동 같이 하늘에 살고 있는 상상의 동물인 용(龍)자가 동네하고 관련해 생겨 났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天安'이라는 고유한 명칭의 '天' 자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가 동네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나 건축에 어떤 특성으로 생겨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 도시적 특성으로, 물리적인 형태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활용한 천안의 특성을 찾아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웅 천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아산, 공주, 부여이지만 아산과 천안이 상당히 인접해 있고 현대 도시계획 쪽에서도 아산과 천안을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 기차치 같은 것도 천안, 아산접경에 두어 여기에 신도시 개발계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치 트윈시티와 같은 동반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천규 아산(구 온양)은 온천이 유명하고 이로 인해 한동안 호황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천안이 교통중심지로서 시세가 아산에 비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에서는 삼성전자 등의 대규모 전자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천안, 아산이 지역적으로 같은 도시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웅 아산과 천안의 관계는 천안이 교통의 요지로, 온양의 천연적인, 자연적인 조건을 관광객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관계는 하나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아산을 자연적인 요건 중에서도 온천을 기반으로 한 관광

수입이나 도시개발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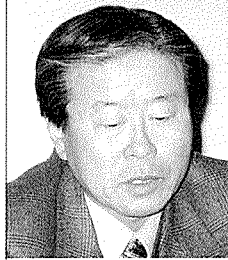
심영섭 _____ 아산은 85년부터 95년까지 10년 동안 인구증가율이 0.02%에 불과합니다. 인구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도시적인 발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온양에서 온천이 나오면서부터, 관광지로 갑자기 커졌지만 그 주변은 농경지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고속전철이나 서해안 개발 등으로 급속도로 발전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안을 거쳐서 아산을 갖지만, 서해안고속도로가 아산 서쪽으로 열리고, 고속전철역사가 생기므로 해서 전체적인 도시구조가 변할 것입니다. 역세권이 아산, 천안지역에 다 걸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산, 천안이 한꺼번에 통합되듯이 될 것입니다. 대전·충남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대전권과 천안·공주·부여권, 서해안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와는 별개입니다. 아산지역은 온천과 함께 관광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온양사가 아산시로 바뀌면서 아직도 혼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아마도 온양 온천이라는 강한 지역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특색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내려온 경우인데 이를 통해 보면 천안이 되었던 공주, 부여가 되었던 그 지역의 관광자원이나 문화자원 그리고 서해안지역의 교통과 아산지역의 새로운 개발 등을 총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무웅 _____ 공주지역의 특색을 살펴보죠.

이해준 _____ 지역성 특성, 차별성 이미지를 말하기 전에, 요사이 형성되는 신도시나 새로운 건축물이 모두 비슷한 것만이 나오는데 지역성이나 차별성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게 승부를 해서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공주는 오히려 남겨진, 아껴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휴가철에 가는 콘도를 지을 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호텔 같은 콘도를 짓고 있습니다만, 공주나 부여는 고개하나 넘어 동네 있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촌락형성과 자연조건, 그와 더불어 백제문화유적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콘도를 지을 때 지역의 전통적인 특성에 맞추어 시골풍이 나는 것을 지었다면 더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공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이라고 하지만 공주를 백제로 한정시켜 보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공주는 통일신라, 고려, 조선 1500년 동안에도 교통·행정 중심지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절대가치로 따지면 무령왕릉을 따라갈 것이 없지만, 수적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것이 80%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주하면 도시가 깨끗하다고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 공주라는 이름에서부터 그렇게 느

끼는 것 같은데, 화려하거나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문화와 교육의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제시대까지 도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개화기건축이나 일제시대의 건축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도 주의해야 할 특색입니다. 그리고 차별성을 보면 금강, 공산성, 계룡산 등이 공주의 역사를 있게 한 고유한 자연조건과의 관계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공주 시내의 문화적, 전원적으로 기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강북쪽으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강남지역은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강남의 남단부에 시청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주는 문화와 교육이 대표적인 상징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상품적 가치를 높여주는 하나의 상표로서는 백제의 왕도(고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천규 _____ 도시계획측면에서 좋은 것을



짚어 주셨는데, 부여나 공주는 강북에 신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건설된 건물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일제시대 건축을 전부 제한해 없애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차옥은

있지만 현재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므로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준 _____ 저 역시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정무웅 _____ 각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를 근거로 개발·보존·현대화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명이나 문화는 제일 중요한 것이 편의성이란 보는데 삶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문화적인 요구나 감성적인 요구(Wants)와 같은 것으로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편의성 위주의 요구를 사회적인 조직이나, 도덕관념들을 통해서 통제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존과 개발은 서로 양립되는 것이라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논의해 보죠.

김역수 _____ 백제문화권을 개발함에 있어서 문화재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관광사업과 지역개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모순, 충돌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94년도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을 발표했는데, 그때 55개의 사업을 확정짓고 '95~' 2001 7개년 계획으로 1조 5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8%만 국비로 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로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부의 시책 발표 이후에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국비 18%이후 나머지 82%를 민자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발표한 것은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봅니다.

이해준 예를 들어 봉황산 밑에 15층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곳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상품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등산하고 주변의 경관이 아파트에 한눈에 들어오는 등 거주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 그곳에는 업자들이 덩벼듭니다. 그러나 문화재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봉황산 밑에 15층 빌딩이 올라서면 자연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거주인이나 개발업자는 그 좋은 땅에 건물을 못 올리니까 또 싫어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바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인데 이는 편의성이라기 보다 당장의 이익이나 아니면 장래의 이익이나 하는 다시말해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곳에 건물을 짓는 것이 상품성도 있고 편의성도 있고 좋은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 도시에 어느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선을 긋지 않으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편의성에 따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길게 보면 이 자원을 살려줘야 그것이 결국 가치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문화경관은 한 번 깨져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수 천, 수 백년 동안 형성된 것이지만 자연의 선을 자른다든지, 문화재를 파손하면 순식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보존이나 발전이나,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김억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4년 12월 말쯤 인가에 우연히 능산리 고분군이 있는 논산 국도변을 지나는데 이 부분을 불도저로 밀고 있던군요.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전혀 통고도 없이 그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해서 공설운동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시키고 발굴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많은 문화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곳을 지역의 문화적 상품가치를 인정해 보존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재의 상품가치를 인정한 경우로 이런 것이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징적인 예라 할 수 있겠지요.

심영섭 건축계에서도 개발과 보존의 문제를 생각하는 방향이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는, 우리 정책 중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경주나 인사동의 예와 같이 한옥보존이다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규제조치가 많다 보니 생활하는 삶이 빠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보기는 좋은데 거기에 실제 사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곳 사람들의 삶이 빠진 상태에서 정부에선 문화요소를 가시적인 세트(Set)보듯이 하다보니까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질 것은 지켜지면서 변화하는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기적인 생명력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너무 있는 그대로만 유지하고 심지어는 보존까지 하려는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건축의 시각적 측면에 대한 것으로 그래도 어디를 갔을 때 도시의 이미지나 특성을 얘기할 때는 시각적인 것으로 건축물을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적 정서나 문화 및 특성을 건축에 이미지화 시켜야 합니다. 공주, 부여의 경우 기존(과거)의 인공적인 것으로서의 건축물들은 현재 찾아볼 수 없고, 경주나 전주처럼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때부터의 건축에 대한 보전도 그리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공주, 부여나 천안, 아산도 도시계획 구상을 보면 아직도 2차원적인 평면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지도 놓고 최단거리로 길 뚫고, 폭 얼마 정하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물리적이고 계량적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대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설계가 시행되는데 도시는 3차원이다라는 기본개념에서,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오면서 남산을 보려면 어디는 건물을 낮춰야 되고 한강변은 어떻게 해야하고 하는 식입니다. 특히 공주, 부여 같은 역사성이 있는 도시들은 도시설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인공적인 것이 별로 없으니 기존의 자연경관들 강, 산들이 도시를 접근하면서 어떻게 보일지, 이런 것 등이 3차원적으로 고려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여의 경우 건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 규정하는데 그것에 따른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무조건 일률적인 기준으로 무리하게 규제 할 것이 아니라, 점적으로 되면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5층이 아니라 3층으로 묶을 때는 면밀히 조사해서 3층으로 묶고, 10층으로 풀어줄 수 있는 곳은 10층으로 풀어주고, 아니면 도시의 한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처럼 3차원적으로 경관이나 문화재를 도시의 시각적인 이미지구성 요소로 만들어 나간 후에 점차 내부적으로 나오는 여러가지 이면에 깔린 문화적인 요소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건축이나 도시계획쪽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훈 공주보다는 부여가 훨씬 더 역사도시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개발이 안되어 옛날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발이 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옛날 모습을 살려주는 것인데 그 로인해 생겨나는 문제는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소유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계산해서 10층, 5층, 3층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상대적으로 3층이나 5층의 소유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옛날 18세기, 19세기 때 지었던 건물들을 역사가 짧은 나라다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서서 개발을 제한했는데, 이때 시에서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개발이익과 제한으로 인해 얻지 못하는 부분을 환산해서 보상해준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참고할 만 합니다.

정무웅 먼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대의 실용성 문제라든가 교육적 가치로서의 문제 등에 따른 문화재의 우수성 정도 등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구별을 지어야 적절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화재나 지역문화를 다루는 상설기구 같은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준 적어도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론과 편익성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고인룡 이 지역의 문화재는 산재한다고 했는데 이를 근거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문화재를 중심으로 개발한다고 할 때 문화재를 마치 섬과 같이 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타리 쳐놓고 오히려 생활과 격리시키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여러 문화재를 점적으로 보기보다는 도시전체와 연계된 선적인 개념으로 보아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문화재를 물리적으로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물리적인 문화재와 비가시적인 생활, 문화, 풍습 등과 같은 무형의 것도 개발하여 이를 담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리적 문화의 연결선과 무형의 생활문화의 연결선이 입체적으로 한 도시에 부여되면 종합적인 도시의 이미지, 즉 특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과거 지향적인 문화와 함께 우리사회의 현재적 생활과 특성을 시간적인 축을 따라 과거와 연결지어 계속 개발, 보존한다면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지역특성이 형성될 것입니다. 건축, 도시는 그러한 흔적을 지닌 공간, 형태를 적극적으로 가시화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맹식 부여에는 시나 도 단위에만 있는 문화재 관리과가 있으면서도 행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 확인 여부도 없이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행정당국의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가 밥 먹여 주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지도자의 강한 의지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무웅 문화재 보전, 개발의 충돌 등에 따른 대안으로 이런 안을 처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관·개발업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모임이 필요합니다.

이천규 정치부터 정책까지 이를 결정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입법에서 정책시행 단계에 전문가들의 진출, 참여와 의견반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무웅 끝으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성, 전통과 현대, 개발과 보존 등 이런 문제점들을 역사적인 중소도시 건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죠.

심영섭 도시의 성격을 장기적인 입장에서 건축이란 개발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편익성에 너무 심취(마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문화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문화적 기반 즉, 인프라가 더 중요합니다. 개발이나 건축 계획은 건축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표준설계와 같은 것이 여러 도시를 무대 세트 같은 도시로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건축가의 개개인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준 도시나 건축의 디테일의 한 부분에 전통 무늬나 이미지를 부여해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부여와 같이 보도블록에 전통문양을 넣은 경우가 그런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전통화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각이나 기타 작은 부분을 살리면 그 지역의 상징성이 구체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느낌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온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서도 이러한 쪽에 관심과 의식이 있는 분이 건축설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건축과 교수님은 오래 전부터 토기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런 분의 설계는 보다 전통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스케일에서는 이런 관심을 가진 여러 전문가가 연대

하여 지역적 모티브를 살려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무웅 _____ 사실 전통의 문제는 건축인들에게 있어서도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일 것입니다.

최맹식 _____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기념탑과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뜻이 좋고 그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할지라도 지역의 정서와 다르게 제안되면 그것이 세워진 지역 전체의 인상을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어디의 충혼탑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부여의 경우 새로 건설하는 다리 난간을 백제의 이미지를 살려 처리한 경우나 가로등의 변형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준 _____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을 보존하기 위해 돌담을 쌓거나 성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까 고교수가 지적했듯이 그 유물의 배경작업이 우선 필요합니다. 즉 그 유적의 가치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마련과 그 유적과 관련된 문화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성의 모형을 만들어 시내나 어떤 박물관 등에 전시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고인룡 _____ 모형 뿐 아니라 생활모습이나 공간까지도 만들면 더 좋을 것이다. 공간 속에서 지역성을 느끼게 하여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간의 디자인 등에 지역의 특성요소를 주제나 소재로 반영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훈 _____ 지역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축, 도시적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점에 있는 문화재나 모티브들, 천안의 경우에는 천안삼거리나, 천안역사, 태조산 그리고 호수를 들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의 각 지점들에서 지역적 특성을 풍길 수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주변을 개발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 지점들이 보다 적극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을 엮어주는 가로형성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점 가령, 터미널이나 역과 같은 곳에 방문객이 내렸을 때 터미널(역)부터 어느 지점까지 계속되면서 그 곳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나, 그 가로에서만은 그 지역의 특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



다. 셋째로, 부여나 공주처럼 역사적으로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 전체를 묶어주는 법적인 제한을 한다든지, 어떤 요소를 통일감있게 처리하는 경우처럼 전체적인 규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이 지역에는 충수의 제약이라든지, 일산 신도시와 같은 경우처럼 단독주택의 특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평지붕을 못쓰게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보도블록은 특정한 것으로만 한다든지 벽 또한 특정한 재료로 한다든지 하여 지역전체를 묶어주는 성질을 부여하여 그 지역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무웅 _____ 건축의 표현 문제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도 여러날 토론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억수 _____ 건축하는 분들도 역사 문화적인 고증 쪽에 신경을 써서 백제문화권에서는 그 쪽에 대한 고증을 통해 건축에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건축에만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낙후되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군요.

이해준 _____ 현재의 상황을 박물관설립의 예를 들어보면, 원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고 관리할 담당자가 임명된 후 전시의 방향과 전시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가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먼저 예산 세우고 대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지은 후 관리를 위해 관장이 오고 전시물을 구입, 수집하며 학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학예관을 임명하는 식입니다. 그러니 설계 후 전시물과 조화되지 않는 박물관도 나오는 것이고 지역적 특성의 획득에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심영섭 _____ 문화재 쪽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다보니 건축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준 _____ 건축하시는 분들끼리 한 번 더 모임을 가지시죠. (웃음)

정무웅 _____ 장시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좌담주제나 건축사협회의 기획의도가 선불리 어떤 정답을 구하거나 해결방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동기가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식이 점차 고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부딪혀야 할 실천적, 말하자면 디자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했지만 그 이전에 건축과 관련된 문화 사회, 생활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긴 시간 좌담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